

Research Topics

이슈 탐구

라틴아메리카, LGBT를¹⁾ 바라보는 의외의 시선

정이나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지젝이 『새로운 계급투쟁』에서 인용한 2015년 6월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2015년 6월 어느 주말 뉴욕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여러 주에서 동성애자들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 자축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몇몇 단체가 반대 데모를 벌였다. 그중 유독 눈길을 끈 것은 정통파 유대교도 단체였다. ‘유대인 정치행동 위원회’라는 이 단체는 멕시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유대인 복장을 입히고 ‘유대교는 동성애를 금지한다’거나 ‘신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지, 아담과 스티브를 만든 것이 아니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게 했다. 이 단체의 대변인 헤시 프리드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유대인 학생을 대신해 참여한 것이라며 이렇게 둘러댔다. “랍비의 예시바(유대인 탈무드 교육기관을 통칭)학생들은 동성애자 퍼레이드를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신랄한 촌평을 남겼다. 유대인 학생들은 아마 “게이 퍼레이드 한복판에서 그것을 꺼내들고 마음껏 즐겼을 거야”라고.²⁾

지젝은 위 사건을 믿음이 없는데도 종교의 전당에 참여해야 하는 강제가 노골적 광신 못지않게 잔인하다는 예로써 인용하였다. 물론 그는 위의 해프닝을 상호수동성의 맥락, 즉 자신의 느낌과 행동을 외부 대상, 곧 인간이나 사물에 떠넘기는 행위로 인식하며, 예상 밖의 기막히게 새로운

1) LGBT(Lesbian 레즈비언, Gay 게이, Bisexual 양성애자, Transgender 트랜스젠더), 이하 본문에서는 편의상 LGBT를 동성애자로 통칭하고자 한다.

2) 슬로보에 지젝, 2016, 『새로운 계급투쟁』, 김희상 역. 자음과 모음.



2015년 뉴욕에서 열린 게이퍼레이드에 랍비의 전통복장을 하고 반대시위에 참여한 멕시코 노동자들 (출처: <http://i.dailymail.co.uk>)

사례로 받아들였다. 적어도 그가 위 사건을 소개한 저서의 맥락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지젝 나름의 ‘고유’ 해석이나 상호주동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과는 별개로 동 사건을 접하는 저자는 두 가지의 강력한 인상에 집중되었다.

첫째, ‘강제’라는 측면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에 참여한 멕시코 노동자들의 행위이며, 둘째는 이들을 하루 일당으로 고용하여 그들의 종교적 이념이든 신념을 주장하고자 했던 전통파 유대교 단체의 적나라한 폭력성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자의 불편함은 어쩌면 이 반대시위의 높은 하루 일당을 위해 참가한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강제와, 그들을 고용하고 필요해 따라 동원한 유대교 단체의 폭력성이었다. 경제적 강제를 이용한 경제외적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멕시코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하루 일당의 경제적 강제는 하루 일당이 절실한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경제외적 효과를 얻고자 했던 전통파 유대교 단체와 형성된 권력관계의 본질이다. 우연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멕시코 출신의 노동자들이, 우연히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이른바 ‘동화 같은 이야기’(Cuento de Hadas)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동성애 반대 시위에, 어쩌면 그들의 종교도 아닌 전통 유대교 의상을 입고 뉴욕 한복판을 점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까.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은 가톨릭 국가이다. 최근에 그 교세가 약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가톨릭 신자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속해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세계 가톨릭 신자는 약 12억 인구로, 이 중 라틴아메리카의 가톨릭 신자는 전체 가톨릭 신자 인구의 약 40%에 달한다.³⁾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이는 라틴아메리카는 종교적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지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억압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는 다소 상반된 사회적 환경임을 주장하는 의외의 조사발표가 있었다.

2013년 발표된 Spartacus International Gay Travel Index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가톨릭과 마초(남성중심적) 사회로 알려진 라틴아메리카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랭킹에 포함된 138국가에 대한 동성애의 법률적 보장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발표된 순위에 따르면, 결과는 예상대로 북유럽 스웨덴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유럽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9위에 놓여있었다. 다소 놀라운 결과였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 라틴아메리카 국가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고, 멕시코시티는 2009년 게이와 레즈비언에게 결혼과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였으며, 뒤이어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등지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동성애를 부정하거나 다소 보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국가는 138국가 중 104에 위치한 온두라스와 함께 페루가 비슷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⁴⁾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는 동성애

3) <http://www.pewforum.org/>

4) http://www.huffingtonpost.com/2013/06/03/lgbt-friendly-latin-america_n_3378373.html



파라과이 아순시온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http://www.telesurtv.net>)

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세계적으로 부모의 약 2/3 이상은 자신들의 자녀가 동성애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한 반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결과는 다소 이례적이었다. 이 지역의 부모 약 2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동성애라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⁵⁾.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의 중심에는 혐오와 관용, 혹은 무관심과 인정이라는 그 즈음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기준은 그것이 종교이든 문화이든 혹은 개인적 가치, 신념, 철학에 따른 판단이든지 다수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혐오, 관용, 혹은 무관심, 인정이라는 다양한 입장들로 그들의 존재이유와 방식을 규정하고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들로 대면할 것이다.

전통 유대교 단체들이 멕시코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까지 성소수자들

5) <http://www.telesurtv.net/english/news/Latin-America-Most-Accepting-of-LGBT-People-Survey-20160517-0042.html>

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과장하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일회성 퍼포먼스는 일시적이었으나, 역으로 그들의 행동이 반증한 ‘명분’ 없는 주장들은 다소 조롱 섞인 어투로 오랜 시간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들이 멕시코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강제하고자 했던 그들만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는 그들이 강제하고자 했던 방식으로 풍자되지는 않을 런지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잔인함은 바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다는 거만함과 오만함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더욱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한 사회가 성소수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는 특정한 방식의 시선과 기준은 역으로 특정한 종교적 집단이든지 혹은 문화적 공동체가 그와 다른 가치와 문화에 대해 갖는 거부, 부정, 혐오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인종주의적 가치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믿고 있지만, 이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과는 다른 ‘우리’의 존재 방식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과거 상이한 계급에 속하는 그리스인 또는 로마인 사이의 성교 역시 파멸적인 인종혼합을 의미했으며, 철저히 거부당했다. 즉 억압받는 계급의 구성원은 낮은 인종과 동일시되는 것이다.⁶⁾ 따라서, 문제는 인종이 아니라 계급이었다. 인종주의 근저에 깔려 있는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또한 전통과 유대교 단체가 궁극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창조 신화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화를 통해 유지될 수 있었던 권위주의적 가족 제도이자 이를 통해 보장 받고자 했던 권위주의적 사회체제의 존속이며,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 그것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순간은 역시 ‘명분’없는 주장들이 생겨나면서이다. 예시바 학생들이 동성애 퍼레이드를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멕시코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반대 시위에 대신 참석하도록 했다는 유대교 단체 대변인의 변명이 웅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어쩌면, 전통 유대교 단체들은 그들의 젊은 후학을 반대시위에 나가도록 설득할 만한 그럴듯한 명분이나 논리를 찾아내지 못한데서 나온 궁여지책이 아니었을까. 위 사건을 두고 신랄한 촌평을 남긴 이도 같은 인상을 받았을지 모를

6) 빌헬름 라이히(2006), 파시즘과 대중심리, 그린비.

일이다.

가톨릭 종교라는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에 대해 갖는 상대적 개방성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미부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그 사회의 시선은 결국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직결된다. 실제로 동성애는 그 사회의 소수이기 때문에 약자가 아니라 그 사회의 지배적인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기에 저항의 대상은 아닐까. 소수로 치자면 뉴욕의 전통과 유대교 단체만한 것이 있을까. 이것은 여성이 절반인 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멕시코 북부의 도시 후아레스에서 발생한 여성 연쇄살인은 독립적인 근로 여성을 상대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 범죄의 유형이나 잔혹성은 전형적인 마초의 성격이 강한 남성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었다. 권위주의적인 전통적인 사회질서의 변화와 그것이 야기하는 권력관계의 변동은 기존의 남성중심의 지배질서를 위협하면서, 이에 대한 반응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닐까.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크게 쟁점화되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양상을 역으로 살펴보면, 문제는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사회라는 지배적인 질서를 통해 그들이 향유한 혜택의 상실이다. 그것이 계급적 혜택이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재생산되는 문화적 상징 질서이든, 지배적인 권력이 그 사회를 관통하여 요구하는 사회질서의 성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그 사회의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의외로 ‘제법’ 우호적이라는 사실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다.

정이나 — 부산외대 라틴아메리카지역원 HK연구교수